

강신술의 실체

TMI 실천해 보세요

35. 이웃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36. 이웃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74. 친절을 베풀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 **연구 범위** 마 10:28; 전 9:5; 사 8:19, 20; 요 11:11~14, 21~25; 살전. 4:16, 17; 계 16:13, 14; 마태 24:23~27; 살후 2:9~12
- **기억 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 17).

죽었다고 선언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동안 보고 들었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임사 체험(near death experiences)이 수십 년 전에 널리 이야기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사람이 죽어도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믿고 있다.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믿음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속임수이다.

강신술은 에텐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고 한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념은 또한 19세기의 가장 허무맹랑한 종교운동으로 등장하여 결국 사기로 밝혀진,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폭스(Fox) 자매의 주장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은 사탄의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경의 가르침에 확고한 기반을 두는 것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각과 생각이 아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학습 목표

- ☑ **깨닫기** : 사탄은 영혼불멸설로 속이지만 성경은 죽음을 부활 이전의 잠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 ☑ **느끼기** :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탄의 기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 ☑ **행하기** : 사탄의 기만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며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한다.

TMI 안으로 안교 소그룹이 함께 서로를 돌보고 연합함

1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님을 환영합니다.

2 출석과 공부를 확인하고
안교헌금을 드립니다.

3 결석자와 구도자를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TMI 위로 안교 소그룹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

- ① 시작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바르게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경험 있습니까?
- ② 사탄의 거짓말은 장차 어떤 교묘한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까?(창 3:4)
- ③ 죽음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까?(왕상 11:43)
- ④ 만약 죽은 자가 이미 하늘에 있다면 성경은 어떤 모순을 보이게 됩니까?(살전 4:16)
- 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시험이 어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마 24:24)
- ⑥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계 14:12)
- ⑦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론 사탄의 거짓말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 말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한다.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핵심 전략 강신술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하여 택하신 자라도 기만할 것이다.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만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TMI 밖으로 안교 소그룹이 함께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함

- ① '내가 실천한 TMI 활동 : ()'을 적고 함께 나눕니다.
- ② 안식일학교·선교부 홈페이지 'TMI time' 게시판에 활동 소식을 사진과 함께 올립니다.
- ③ 오늘 오후에 실천할 TMI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TMI(Total Member Involvement)는 전 교인이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실천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운동입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죽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는 영혼의 본질이 불멸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이교 사상이 교회에 스며든 것은 더 광범위한 로마 세계에 신앙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적 기초에서 멀어지던 기독교 초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각 시대의 대쟁투, 549).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이 구절만으로도 영혼 불멸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들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신 18:11) 몰아내야 했고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다(레 20:27). 형벌이 매우 가혹해 보이지만 거짓 신을 숭배하는 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술은 마귀의 것이다. 주술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로 현혹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코 마음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속박하던 악의 사술에서 풀어 주신다.

전도서 9:5, 욥기 7:7~9, 이사야 8:19, 20을 읽어 보라. 이 구절은 죽음,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통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교훈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묶고 있는 악의 사술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묵상

사탄의 거짓말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이어서)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몇몇 성경 본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사용한다. 이 거짓 가르침은 특히 마지막 위기에서 사탄이 강요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든다.

적용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다乎?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영감의 교훈



악한 천사들의 기만극인 강신술 -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걷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사도 행적, 290).

기도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것에 휩쓸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 앞에 취약합니다. 자기 생각, 욕심, 고집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우리 마음과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약이 말하는 죽음

시편 6:5, 시편 115:17, 열왕기상 2:10, 열왕기상 11:43, 열왕기상 14:20을 읽어 보라. 이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 신실한 자는 죽은 후 영원한 천국의 행복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다. 구약은 죽음을 잠이라고 가르친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그들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표현했고, 시편은 이를 “사망의 잠”이라고 기록했다(시 13:3, 시 90:5). 욥은 죽음은 잠을 깨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욥 14:12). 시편 기자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라고 노래했다.

앗수르 군대가 패배하여 멸망했을 때 병사들의 죽음을 “다 깊이 잠들었”(다(시 76:6) 하였다. 죽은 자에 대해 육체 없는 영혼이 산 자와 소통하기 위해 주위를 맴도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이교의 것이다.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560).

다니엘 12:2과 욥기 19:25, 26을 읽어 보라. 이 구절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어떤 면을 덧붙여서 말하는가?

죽음은 부활할 때까지 쉬는 것이다. 산 자와 소통하기 위해 주위를 맴도는 육체 없는 영혼은 없다. 이교도들은 사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교훈

이교도들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구약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묵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어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들이 죽음으로 눈을 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경험하는 다음 장면은 바로 재림의 순간일 것이다. 그들은 부활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와! 예수님이 정말 속히 다시 오셨구나!

적용

매일 죽음같은 잠에서 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언젠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영감의 교훈



신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요 11:26)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가려 뽑은 기별 1권, 302~303).

기도



주님의 재림을 멀다고 생각하게 하는 세상의 속임에서 벗어나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매일 잠들 때 주님을 고대하며 잠들게 하시고 아침을 맞을 때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신약이 말하는 죽음

요한복음 11:11~14, 21~25, 디모데후서 1:10, 고린도전서 15:51~54, 데살로니가전서 4:15~17을 읽어 보라. 구약의 묘사와 비교하면 신약 기자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어떠한가?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신약은 구약에서 이미 암시했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측면을 더한다.

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강조한다.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굳게 닫힌 것 같았던 무덤 문이 열렸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한다.

바울이 한 말을 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고전 15:16~18). 죽은 사람이 사후에 이미 천국의 복락에 들어갔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미 천국에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며,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은 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벧전 1:4)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신다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교훈

신약도 구약과 동일하게 죽음을 잠으로 나타내며 거기에 더해 예수의 재림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받을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묵상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그토록 강력한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이어서) 그러나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함” 기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가? 신약의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했다. 하늘에 간직함 소망은 신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적용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영감의 교훈



죽음으로 헤어진 자를 부활 때 만나게 됨 -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가려 뽑은 기별 2권, 259~260).

기도



하늘의 소망마저 왜곡하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하니 우리에게 깨어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에서 지켜 주시고 말씀을 항상 연구함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강신술 - 1

마태복음 24:5, 11, 24; 데살로니가후서 2:7~9; 요한계시록 13:13, 14; 요한계시록 16:13, 14을 읽어 보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직면하게 될 것인가?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연구소장 앙헬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므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세 더러운 영[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혼 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 The Closing of the Cosmic Conflict: Role of the Three Angels’ Messages, unpublished manuscript, 6).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좋은 역할과 나쁜 역할을 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가?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교훈

죽은 자의 상태를 잘못 이해할 때 사탄의 미혹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을 기만하는 속임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묵상

사람이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어서)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61).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 죽은 자의 상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살아 있다는 망상에 의해 손쉽게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적용

내가 경험하는 사탄의 혼한 속임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



더욱 교활해진 강신술의 기만 -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에 비해 용인할 여지가 보이기 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속임수로 그 위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의 강신술은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둬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엄숙하고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558).

기도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 가족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가까이하지 못하는 생활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강신술-2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그분의 피 묻은 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희생을 받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2:13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른다. 사탄의 목표는 이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이적과 표적, 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마지막 쟁투에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따르다 할지라도 남은 자의 이 두 가지 특성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마태복음 24:23~27, 고린도후서 11:13, 14, 데살로니가후서 2:9~12을 읽어 보라. 이 구절은 사탄의 기만적인 능력과 활동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그의 최후의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 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얹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교훈

사탄은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한다.



묵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어서)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계 1:13~15 참조)”(각 시대의 대쟁투, 624).

적용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오늘 그대는 어떻게 준비하며 생활하겠습니까?

10

영감의 교훈



진리에 서야 함 - “영혼의 방벽이 무너짐으로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어서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정욕에 굴복하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저희 시대의 현저한 압정과 극악한 부정, 분수에 넘는 사치와 방종, 수치를 모르는 연락과 술 취함, 심한 방탕과 주색에 대하여 음성을 높여 경고하였으나 그들의 항의는 헛되었고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였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선지자와 왕, 28)

기도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면서도 어느새 거짓과 죄의 편에 가까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매일 경험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미국 기독교 저술가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은 최근 저서인 ‘내세에 대하여’(The Case for Heaven)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일종의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임사 체험’(NDE) 사례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 “심장 수술 중에 임사 체험을 겪은 소녀는 사후 세계에서 오빠를 만났다고 했다. 그녀는 오빠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 그녀가 회복된 후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실제 오빠가 있었지만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리 스트로벨, The Case for Heaven, 그랜드 래피즈, 2021, 69).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죽음 직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상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만 그리스도인이 최 종적인 상을 받는다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조화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탄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그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에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계 3:10)키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560).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 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탄은 어떤 교묘한 영적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일에 대중 매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②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믿는 친구에게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어떤 말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필리핀에서 온 마리사에게 한국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남편은 물론 다른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

다. 고국에서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한 소통창구였던 친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딸은 그녀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며 하나님은 그녀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딸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돌아가신 언니를 대신하여 주신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마리사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고, 다닐만한 교회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검색하며 들었습니다. 여러 종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고 검색하던 중 재림교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매일 그의 설교를 듣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엘라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친 필리핀 선교사가 재림교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딸과 함께 동해국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리사는 다문화센터에서 필리핀에서 온 다른 가족을 만났고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으로 그들도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마다 4가족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음악전도회, 크리스마스 파티, 다문화 가족 소풍, 베이비 샤워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주변의 다문화 가족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과 협력하여 다문화전도회를 위해 함께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마리사와 친구들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중한합회 동해국제교회 담임목사 나현철